

해저출토 도자기의 산지분석

정용화, 문환석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

A Scientific Analysis of Provenance of Ceramics Excavated from Seabed

Young hwa Jung, Whan suk Moon

Underwater Excavation and Conservation Division.

National Maritime Museum

I. 분석 대상 시료

표 1. 분석 시료

구분	출토지	수량(점)	추정시기	발굴기관
Group I	군산 십이동파도(GS)	15	11C~12C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남 진산리(HJ)	15	10C~12C	목포대 박물관
	해남 신덕리(HS)	15	9C~11C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남 초송리(HC)	10	10C~11C	"
	고창 용계리(YG)	15	10C~12C	원광대 박물관
	강진 용운리16호(16YU)	15	9C~11C	강진 청자박물관
	강진 용운리63호(63YU)	5	9C~10C	"
Group II	군산 비안도(GB)	15	12C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부안 진서리(BJ)	15	12C	원광대 박물관
	부안 유천리(BU)	15	12C~13C	"
	강진 사당리7호(7SD)	15	12C	강진 청자박물관
	강진 사당리9호(9SD)	5	14C	"
	강진 사당리10호(10SD)	13	12C~14C	"
	강진 계율리23호(23GY)	15	11C~12C	"
Group III	무안 도리포(MD)	15	14C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강진 사당리10호A(10SDA)	8	14C	강진 청자박물관
	강진 사당리10호B(10SDB)	7	14C	"
합		213점		

분석 시료는 표 1과 같이 해저에서 발굴한 군산 십이동과도, 비안도 및 무안 도리포 해저출토 도자기를 중심으로 제작산지로 추정되고 있는 전남 해남, 전북 부안, 전남 강진 지역의 고려청자 도요지와 시기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창 용계리 등 도요지 시료를 포함하여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시료 선정은 기형, 유색, 문양 등을 기준으로 시료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 15점씩 총 213점을 분석하였다.

II.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석기(ICP-AES, Inductive Conductive Plasma -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SPS 7800, Seiko Inc., Japan)를 이용하여, 주요성분 원소 9개(Al, Fe, Mg, Ca, Na, K, Ti, Mn, P)와 미량성분원소 12개(V, Cr, Sr, Ba, Pb, Sc, Co, Cu, Zn, La, Ce, Y)를 정량 분석하였다.

III. 분석 결과

해저에서 발굴한 도자기와 제작산지로 분류되었던 도요지 출토 도자기를 대상으로 제작산지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성분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전남 강진·해남, 전북 부안 도요지에 대한 지역적인 분류는 일부 가능하였다.

둘째, 미량성분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군산 십이동과도 해저 출토 시료는 해남 신덕리 시료와 좀 더 명확하게 그룹을 이루고, 진산리 시료와는 구분이 된다. 이것은 해남 신덕리가 제작산지라는 도자사적 고찰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강진 용운리 16호와 63호, 용계리 도요지 시료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도요지와는 확실하게 제작산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군산 비안도 해저 출토 시료의 경우, 지역적, 시기적으로 비교한 강진 사당리·계율리 도요지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며, 도자사적 고찰에 따른 제작산지인 부안 유천리 보다는 인근의 부안 진서리 도요지를 제작산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

넷째,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시료는 주요성분, 미량성분의 판별분석 결과 강진 사당리 10호 A와 B 모두 제작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